**미국 사회복지 현장실습 프로그램 공지**

**1. 미국 사회복지현장 실습의 목적**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 전공생들에게 선진국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통하여 선진 사회복지 실천을 배우고, 국제적인 감각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미국 사회복지현장 실습의 목표**

제안사업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하위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기술과 전략을 배운다.

        2) 다원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 역량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전략을 배운다.

        3) 세계화의 추세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과 문화적 감각을 배운다.

**3. 사업의 추진 방안**

**1) 참여 대상:**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 전공생을 학업성적과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엄선(최대 4명)

TOEIC 600점 이상(2012년 11월말까지)

선발 후 미국 현장 실습 준비세미나 매주 참여 필수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여권이 구비된 자.\*\*

**2) 시행 기간:** 2013년 1-2월 중 5주.

**3) 학점 인정:** 해외인턴실습 3학점 인정.

4)학교의 지원: 항공료로 75만원 지원 확정. 체재비와 실습비는 개인 부담 (예상되는 월 숙식비용은 $600 정도+ 실습비 50만원)

**5) 미국 내 현장 실습 주관 기관의 소개:**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에 소재한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는 1975년에 이주 한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적응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1982년도에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연방정부에 등록되었다.

설립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한인이주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 상담, 비행청소년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는데, 1992년도 L.A. 폭동 사건 이후 한인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인종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사업들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빈곤지역의 주거문제,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육사업, 청소년 프로그램, 교육지원 사업, 정신보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 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등 정부기관과 재단, 기업 및 개인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도 연 예산은 약 55억이다. 현재 약 60명의 사회복지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며, 약 30%가 한국계 직원이며,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다인종 사회인 미국사회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사회복지 개입을 실천하고 있다. 상세한 정보는 [www.kyccla.org](http://www.kyccla.org)에서 찾을 수 있다.

**6) 다른 참여 기관(2112. 1월 기준):**

Asian American Drug Abuse Program(마약 예방 및 치료기관), Korean American Coalition(정치 옹호 및 지역조직화 사업), Korean American Family Counseling, Inc(가정 폭력 옹호 및 가정 상담 기관), Asian Rehabilitation Services(장애 재활 및 직업훈련), Little Tokyo Services (주거 , 노인복지, 종합복지관)

**7) 수퍼비젼**

**KYCC** 소속 캘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있는 임상 사회복지사(LCSW) 기간 중 전담 배치해서 기관 방문 섭외와 동반, 주간 수퍼비젼 제공.